

# 남원지역 출토 기대의 검토

A Review on the Pottery Stands excavated  
in Namwon Area

이 건 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연구 대상

1. 가야·신라 기대의 종류
2. 남원지역 기대의 종류

## III. 비교자료 검토

1. 분포와 특징
2. 연대 검토

## IV. 기대의 계통과 가치

1.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
2. 가야 기대의 유통 가능성과 부장 의미

## V. 맺음말

## 국문 요약

본고는 남원지역에서 출토된 기대에 대한 검토이다. 남원지역에서 출토되는 기대의 계통과 부장 배경을 확인하고자, 다른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기대와 비교 검토하였다. 기대가 출토된 남원 월산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최근 발굴이 끝난 청계리 청계고분군 1호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원지역 기대를 형태와 장식의 구성에 따라 발형기대는 크게 7개(발A · B · C · D · E · F · G)로, 통형기대는 6개(통A · B · C · D · E · F)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기대의 비교자료 분포는 가야와 신라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기대는 대가야뿐만 아니라 금관가야, 소가야, 아라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기대와 비교 가능하였다. 일부 유형은 현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3개 고분군에서 출토된 기대의 계통과 구성이 달랐다. 고분군의 조영순서는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순이며, 부장된 기대는 점차 대가야 계통으로 대체됨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서 현지 세력 주도하의 기대 제작도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대가야권의 발B · F형과 통D형, 소가야권 발C형 기대는 특정 기대가 중심권에서 다른 주변 지역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대 유통은 대가야 · 소가야 집단의 주도하에 있었던 증여의 결과로 상정하였다.

**주제어 :**남원, 삼국시대, 발형기대, 통형기대, 계통

## I . 머리말

최근 발굴 조사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1호분 1호·2호 석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대(器臺)가 출토되었다. 가야문화권의 기대[그릇받침]는 취락유적보다 고분에서의 출토량이 많기 때문에 매장의례를 위해 생산된 기종으로 볼 수 있다(이성주 2009: 83). 다른 토기에 비해 크고 장식성이 높은 기대의 부장은 죽은 자의 넋을 기리거나, 죽은 자 또는 장례주관자의 부를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가야문화권의 일부 고분에서는 기대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습속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한·백제, 신라 고분의 부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남원지역 가야고분에서 기대가 많이 부장되는 고분으로는 월산리 M5호분,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 부곽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고분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발형기대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와 달리 청계리 청계고분군 1호분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기대들이 부장되어 있었다.

이들 고분군 중에서 장식성이 높은 대형 기대들은 특정 고분에만 부장되고, 이와 함께 공반하는 부장품들 또한 호사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이로보아 대형 기대의 부장은 특정 지위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질서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대형 기대를 부장하지 못한 고분은 이러한 질서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갑자기 형성되는 계기는 외부 문화의 영향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고, 기대의 형태를 비롯한 새로운 부장 습속에는 영향을 준 특정문화의 성질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원지역과 비슷한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의 고분에서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남원지역은 이 일대에 대해 대가야와 다른 가야 소국으로 고려(곽장근 2004: 168~169; 최완규 2018: 20~21)되기도 하지만, 토기와 매장시설에 있어 대가야 문화권 영향 아래 있다(이희준 2008; 박천수 2009: 636). 그리고 기대를 비롯한 토기를 부장하는 습속은 당시 중심지인 고령이나 합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박천수 1994a: 102~103; 박천수 1999: 98). 남원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기대에는 고령이나 합천을 중심으로 유행한 양식이 크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는 당시 매장의례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완성된 높은 기술이 반영된 물품(이성주 2009: 85)이므로, 특정 양식의 기대 분포는 당시 사회들 간의 연관성

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남원지역의 기대들은 대가야권으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심지인 고령이나 합천지역으로부터의 중여, 분배, 교환 등으로 입수한 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공인들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 이식 등으로 기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계리 청계고분군 1호분 1호·2호 석곽에서 출토된 일부 기대에서는 소가야, 아라가야권에서 흔히 보이는 기대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이건용 2020), 각 기대의 형태나 문양에 반영된 제작기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원지역 기대에 대한 이해는 비단 대가야권내 분묘자료만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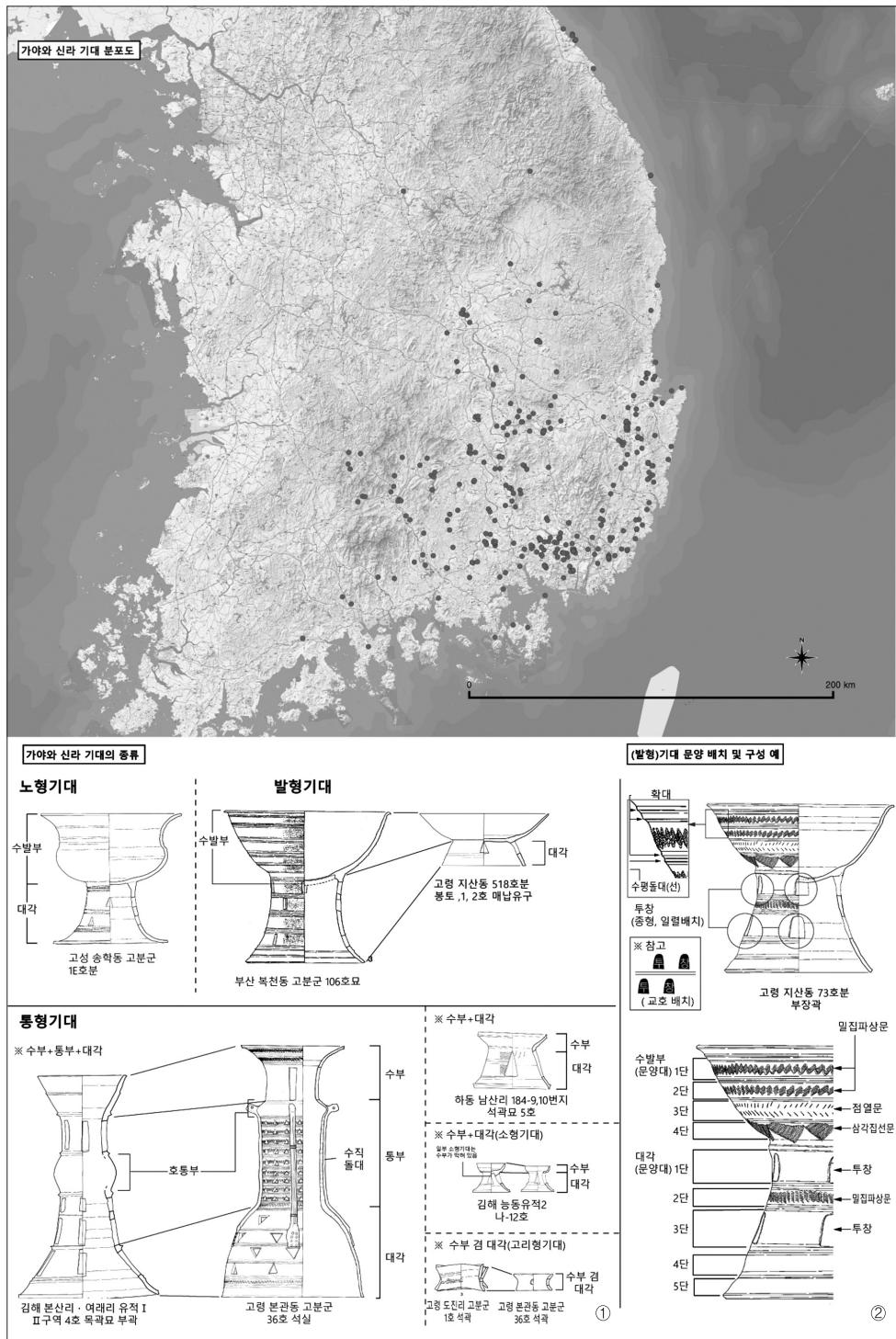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가야는 물론이고, 가야 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라지역 자료를 바탕으로 남원지역에서 출토되는 기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남원지역 기대의 외형적 특징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다른 가야·신라권 기대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비교 자료의 분포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대의 계통을 확인하고, 확인된 계통의 기대가 밀집된 지역(중심권)과 함께 다른 분포지역(영향권)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남원지역 고분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대 계통과 부장습속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과 구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남원 지역 기대에 대한 연구는 고대 가야 사회에서 기대가 갖는 가치와 그 의미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Ⅱ. 연구 대상

### 1. 가야·신라 기대의 종류

가야·신라지역 기대의 분포와 종류는 [도면 1]과 같다. 출토되는 기대의 종류는 노형(爐形), 발형(鉢形), 통형(筒形)기대이다. 기대는 그릇을 받치는 수발부(受鉢部) 또는 수부(受部), 대각(臺脚)으로 구성되고, 통형기대는 수부와 기다란 통부(筒部), 대각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높이가 10cm 내외의 통형기대는 소형 기대라 불리고, 일부 통형기대는 수부와 대각으로만 구성되었다.



[도면 1] ① 가야와 신라 기대의 분포(上)와 종류(下左), ② 기대 문양 배치 및 구성 예시(下右)

가야·신라 기대의 형태와 장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기대는 일정한 형태와 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 부위의 크기 또는 곡률, 그리고 구연부 혹은 대각 등이 제작 집단에 따라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 기대에는 동일한 문양과 투창을 반복적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양과 투창을 배치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가야·신라기대의 장식적 특징은 발부와 대각에서 1~2조 등의 수평 돌대나 횡침선을 통하여 단을 구분하고 각 단 내부에 문양을 시문하거나, 투창을 뚫어 일렬 또는 교호(交互)로 배치하여 장식한다(도면 1-②). 또는 문양을 시문한 후 투창을 뚫기도 한다. 투창은 주로 삼각형과 방형·장방형을 기준으로 동일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서로 다른 형태의 투창을 섞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치하기도 한다. 발형기대 수발부에는 투창을 하지 않지만, 통형기대는 수부, 통부, 대각과 같은 모든 부위에 투창을 배치하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일부 대구 문산리 고분군 4-1호분, 부산 청강 대라리 13호(목곽) 출토품처럼 발형기대의 수발부 상부에 투창을 하는 예외도 존재한다.

[표 1] 가야·신라 기대의 종류와 형태, 장식

기대 종류	부위별 구성	부위별 형태			장식			
		수(발)부	통부	대각	돌대 종류	문양 종류	투창	
							형태	배치
노형 발형 통형	수(발)부+대각 수부+통부+대각 수부 겸 대각	화로형 발형 나팔형	원통형 나팔형	나팔형 반장고형	수평돌대 수직돌대	(밀집)파상문 점열문 삼각집선문 원문 점열문 횡침선	삼각형 방형 원형 종(터널)형 반원형 입정형 부채형	일렬 교호(交互)

## 2. 남원지역 기대의 종류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기대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기대는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sup>1)</sup> 봉대고분군, 대곡리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남원지역에서 기대가 출토된 유적은 대개 아영분지 일대의 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도면 2). 이 지역 출토 기대의 종류로는 발형기대와 통형기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소형기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1) 본고에서 사용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 1, 3, 5호분은 현재 17, 16, 15호분으로 변경되었다(남원시·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본고에서는 예전 벌굴 당시의 고분 번호와 현재 번호를 병기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표 2] 남원 지역 출토 기대의 종류

출토 유구	기대 종류	발형	통형			미상	기타
			수부+통부 +대각	수부+대각	수부 겸 대각 (적재도구)		
청계리 청계고분군 1호분	1호 석곽	●	●				
	2호 석곽	●	●				
월산리 고분군	M1-A	●					
	M1-E		●				
	M3	●		●			
	M4	●		●			
	M5	●		●			
	M6	●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호분 (현17호)	●	●	●	●		
	3호분 (현16호)			●	●		
	5호분 (현15호)	●		●			
	32호 부곽	●					
봉대 고분군 I	지표수습	●				●	
대곡리 유적	나-지구 1호 주거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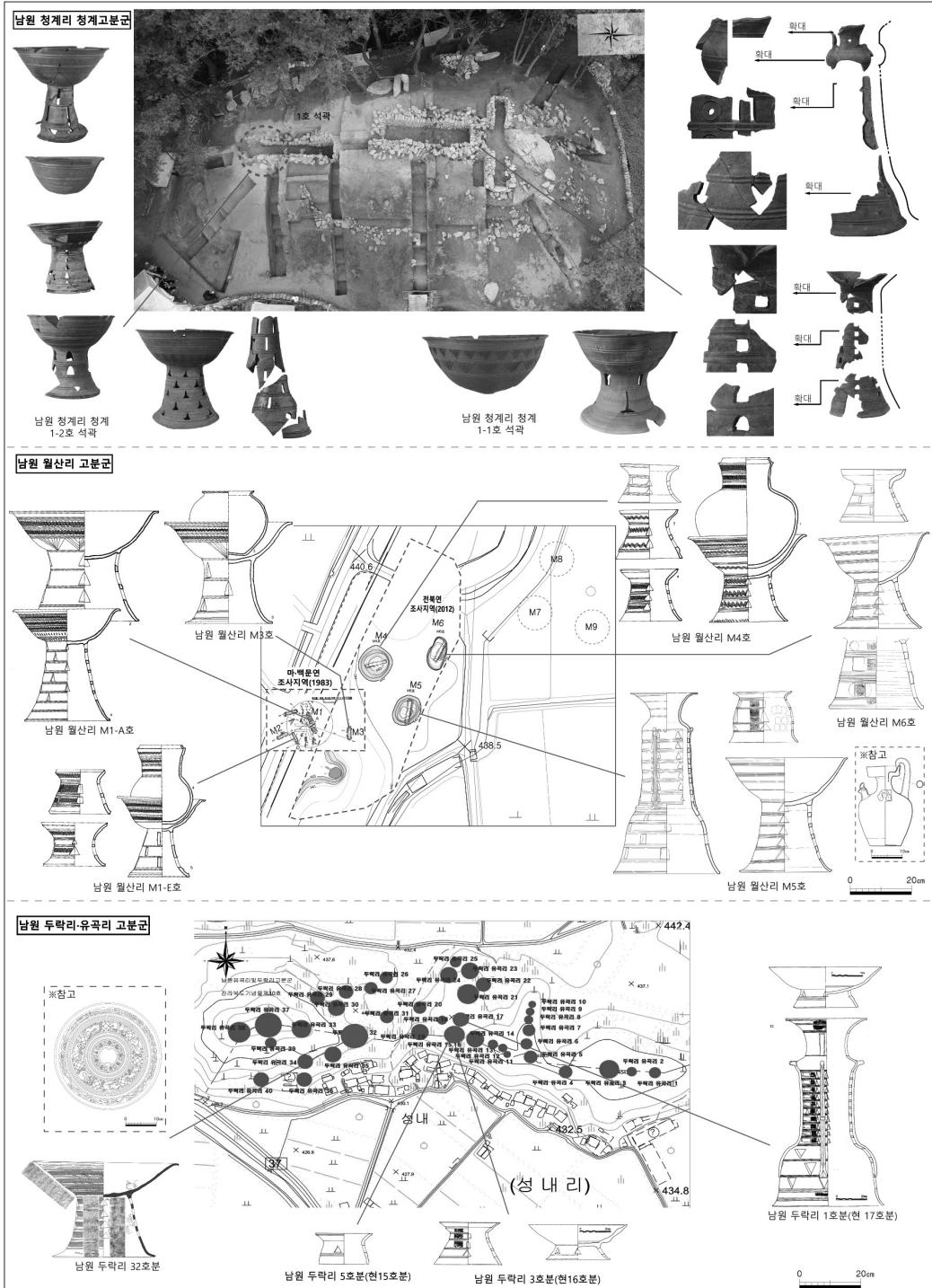
분석 대상 중 하나인 청계리 청계고분군 유물은 아직 정리 중이라 정확한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2호 석곽의 발형기대 2점 · 통형기대 2점, 1호 석곽의 발형기대 5점 · 통형기대 1점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유물 중 통형기대는 본고를 위해 필자가 도상 복원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이용하였다.<sup>2)</sup>

비교자료를 선별하기 위해, 우선 남원지역 발형기대, 통형기대의 기형과 장식, 그 구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발형기대는 크게 7개(발A · B · C · D · E · F · G)로, 통형기대는 6개(통A · B · C · D · E · F)의 종류로 구분하였다(도면 4). 분류한 기대들의 종류와 그 특징은 발형기대는 [표 3]으로, 통형기대는 [표 4]로 정리하였다.

2) 본고에서 다룬 청계리 청계고분군의 1호 석곽 기대 도면은 현재 유물 정리 중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보고서 작성 시 수정될 수 있다. 추가로 1호 석곽에서는 통형기대 1점 · 발형기대 1점, 2호 석곽에서는 발형기대 1점이 확인되었지만, 본고의 분석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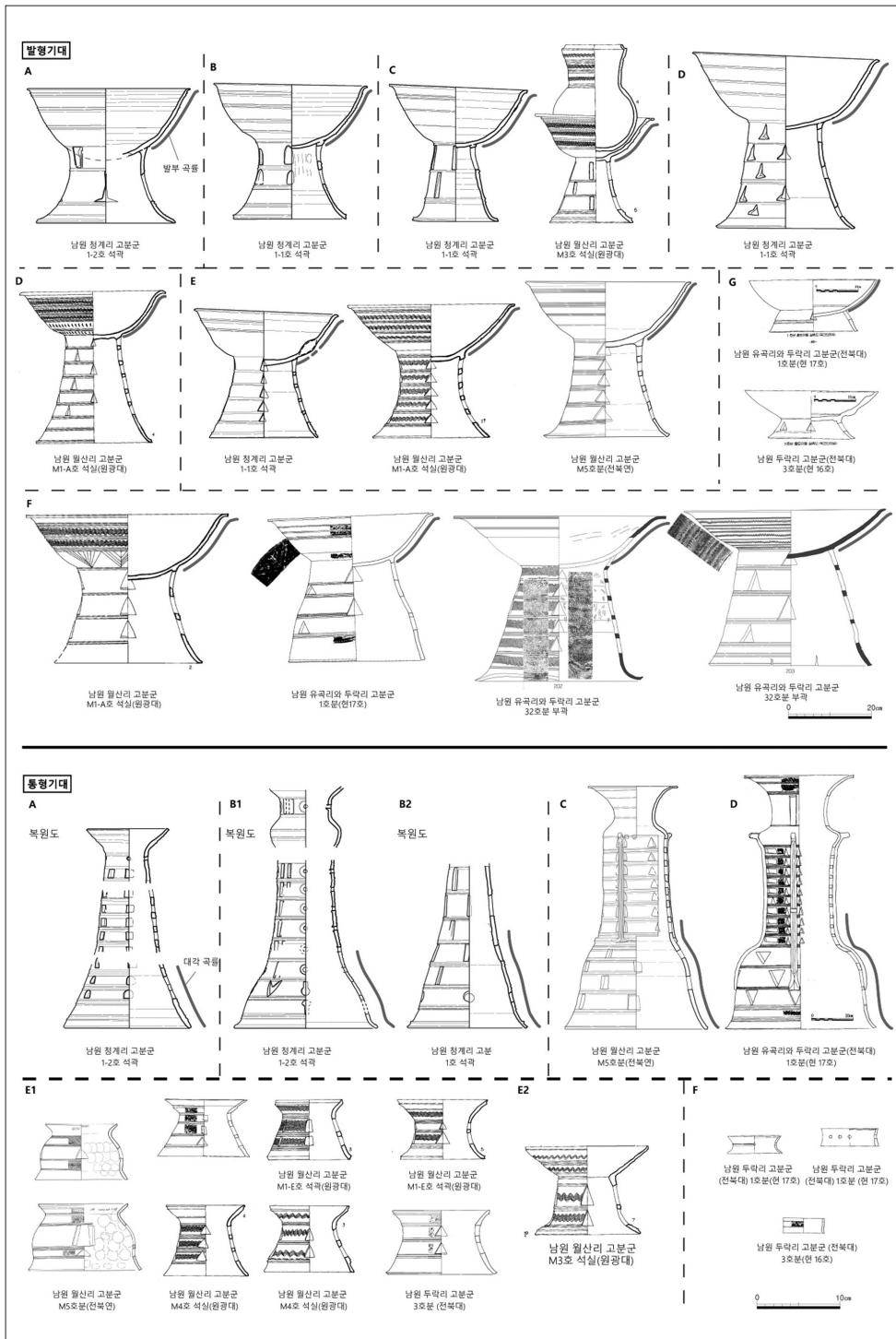
[도면 2]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주변 삼국시대 유적



[도면 3]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남원 월산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주요 기대 출토 상황

[표 3] 남원지역 발형기대의 종류와 특징

유형	특징	문양과 투창		출토 유구
		수발부	대각	
발 A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발부의 심도가 깊고, 대각 상부 폭이 넓음 → 수발부, 대각 접합지점이 비교적 높아서 다른 기대와 측면 비율이 다름</li> <li>-특이한 투창 형태(역제형, 압정형)</li> <li>-대각 투창은 2단으로 엇갈림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li> <li>-삼각집선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제형 투창과 좌우 종방향 침선</li> <li>-파상문, 압정형 투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계리 청계고분군 1-2호</li> </ul>
발 B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발부 심도가 깊은 편이고, 측면은 반구형에 가까움</li> <li>-대각의 투창은 종형이고, 일렬로 2단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 종형 투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li> </ul>
발 C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발부 심도는 깊거나 낮음</li> <li>-대각 상하부 폭이 좁음, 그중 수발부 대각 접합지점이 매우 좁은 편</li> <li>-수발부 최하단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음</li> <li>-대각 투창은 2~3단으로 엇갈림 배치</li> <li>-대각에는 거치구를 이용한 정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장방형 투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li> <li>-월산리 고분군 M3호 · 5호</li> </ul>
발 D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각이 매우 높음</li> <li>-수발부와 대각 단수가 많고(수발부 6단, 대각 6~8단) 수발부와 대각의 각단에는 2~3종류의 문양을 시문</li> <li>-투창은 교호로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li> <li>-삼각집선문</li> <li>-원문</li> <li>-점열문(유충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 압정형 또는 삼각형 투창, 원문, 반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계리 청계고분 1-1호</li> <li>-월산리 M1-A호 · M6호</li> </ul>
발 E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각의 단수는 3~7단에 해당, 대각은 높은 개체가 있고 낮은 개체가 있음</li> <li>-수발부 최하단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음</li> <li>-대각 투창은 일렬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 또는 거치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각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계리 청계고분 1-1호</li> <li>-월산리 고분군 M1-A호 · M5호 · M6호</li> </ul>
발 F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발부의 심도가 낮고(천발형), 구경이 넓음</li> <li>-대각 상부와 하부 폭이 넓음 (안정적인 형태)</li> <li>-수발부 각각의 단에 문양을 배치함 (밀집파상문과 삼각집선문)</li> <li>-대각 투창은 삼각형이며 일렬 또는 교호 배치, 최하단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li> <li>-삼각집선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파상문, 삼각형 투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산리 고분군 M1-A호</li> <li>-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 부과</li> </ul>
발 G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발형기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기고가 낮음(수발부는 천발형이고, 대각 높이가 매우 낮음)</li> <li>-대체로 장식을 하지 않음. 대각에 수평 돌대로 2단 정도 구획을 하고, 삼각형의 투창을 1단에 배치함</li> </ul>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각형 투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호 · 3호분 (현 17호 · 16호)</li> </ul>



[도면 4] 남원지역 기대 분류

[표 4] 남원지역 통형기대의 종류와 특징

유형	특징	문양과 투창			출토 유구
		수부	통부	대각	
통 A 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는 하단 폭이 살짝 넓은 원통 -대각은 나팔형, 대각부가 직선으로 뻗어짐 -(원형, 방형, 종형) 투창은 일렬 배치	없음	-꺾쇠모양의 점열문 -밀집파상문, 원형 투창 -밀집파상문, 방형 투창	-밀집파상문, 종형 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1~2호
통 B1 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형태는 원통형, 통부상면의 기면을 호형대로 돌출(호통부[포]) -대각부는 미약하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곡률이 관찰 -대각부는 살짝 꺾여 외반 -수부, 통부, 대각에는 1쌍의 세장방형 투창, 원문 내부에 원형투창은 일렬 배치 -대각에는 'V'자형, 부채꼴형 투창확인 (* 파상문이 확인되지 않음)	-2열 세장방형 투창, 원문+원형투창	-세장방형 투창 1쌍, 원문+원형 투창[동심원문]	-‘V’자형, 부채꼴형 투창(일부 상하 일렬)	-청계리 청계고분 1~2호
통 B2 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대각부는 미약하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곡률이 관찰 -대각부는 살짝 꺾여 외반 -세장방형 투창 교호 배치	-결실	-밀집파상문, 세장방형 투창 -꺾쇠모양의 점열, 세장방형 투창	-밀집파상문, 세장방형 투창 -타래문, 원형 투창	-청계리 청계고분 1~1호
통 C 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는 원통형, 대각은 반장구형 -통부에는 호통부가 미약하게 돌출 -통부의 수직돌대, 돌대 상부 끝을 말읍(고사리형), 수직돌대는 통부와 대각 접합지점에서 이어짐 -통부(삼각형) 투창은 일렬, 대각(방형) 투창은 교호 배치	-밀집파상문	-밀집파상문, 삼각형 투창	-밀집파상문, 방형 투창	-월산리 고분군 M5호
통 D 형	-수부, 통부, 대각 구성 -통부는 원통형, 대각은 반장구형 -호통부 확인(납작한 형태) -통부의 수직돌대는 상부가 외반, 하부는 뱀머리와 같은 형태	-밀집파상문 -세장방형 투창	-밀집파상문, 삼각형·장방형 투창	-역삼각형 투창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호 (현 17호)
통 E 형	-수부, 대각 구성(통부가 없음) -(삼각형, 방형) 투창은 1단이거나, 2~3단이며 일렬 배치 -측면이 발형기대와 유사한 것도 있음 (남원 월산리 고분군 M3)	-밀집파상문 (유. 무)	-밀집파상문, 삼각형 또는 장방형 투창		-월산리 고분군 M1~E호 · M5호 · 3호 · 4호 · 5호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호분 (현 16호) -대곡리 유적 나~1호 주거지
통 F 형	-수부 겸 대각 -기고 낮음 -단순 적재도구와 같은 형태, 통D형과 유사한 형태도 존재 -일부 중앙에 원형투창, 밀집파상문을 시문	-원형 투창 -밀집파상문			-두락리 고분군 1호 · 3호 (현 17호 · 16호)

남원지역 발형기대의 수발부는 대체로 저부에서 구연부까지 밖으로 벌어지는 쪽 률을 보인다. 수발부의 구경/높이를 비교하였을 때 심도가 깊거나 낮은 것이 모두 확인된다. 대각은 대체로 나팔형으로 벌어지고, 대각의 높낮이, 상부와 하부 폭 또는 전체 크기에서 다양성이 관찰된다.

통형기대는 수부·통부·대각, 수부·대각, 수부 겸 대각으로 구성되는 종류가 확인된다. 일부 통형의 상부 기면을 호형으로 돌출시킨 것들도 확인된다. 또한 대각은 나팔형, 반장고형이 모두 관찰된다.

기대 장식은 발형기대와 통형기대가 공유한 것들이 많다. 장식 중, 문양은 돌선이나 침선을 돌려서 문양대를 구획한 후 내부에 밀집파상문을 시문한 것이 많고, 투창 형태는 삼각형이 많다. 그리고 드물게 문양으로 삼각집선문, 원문, 투창은 종형, 부채 꼴형, ‘V’자형이 있는 기대도 있다. 일부 통형기대의 수부·통부·대각에는 복합적인 장식으로 치장한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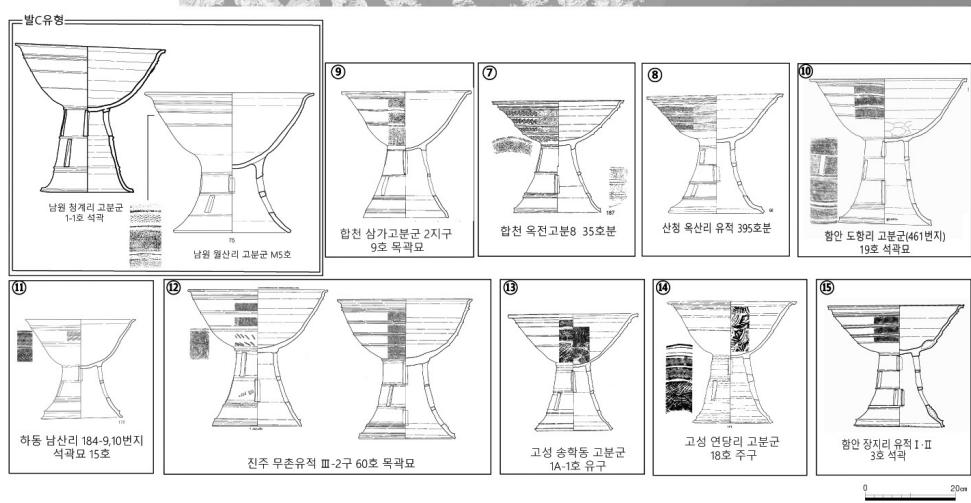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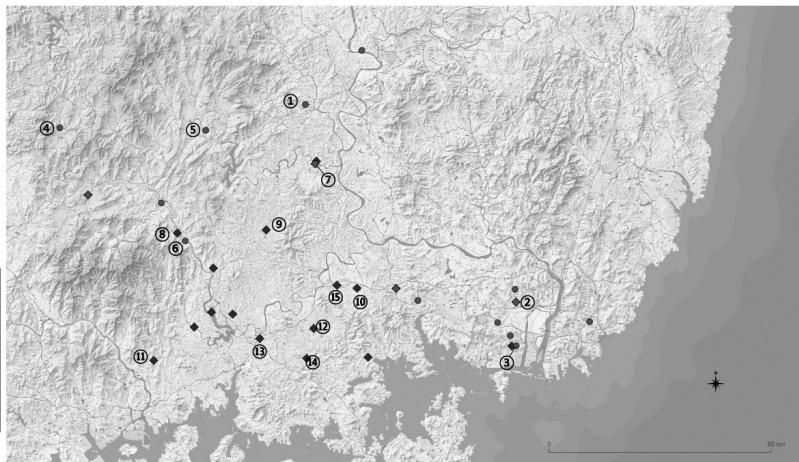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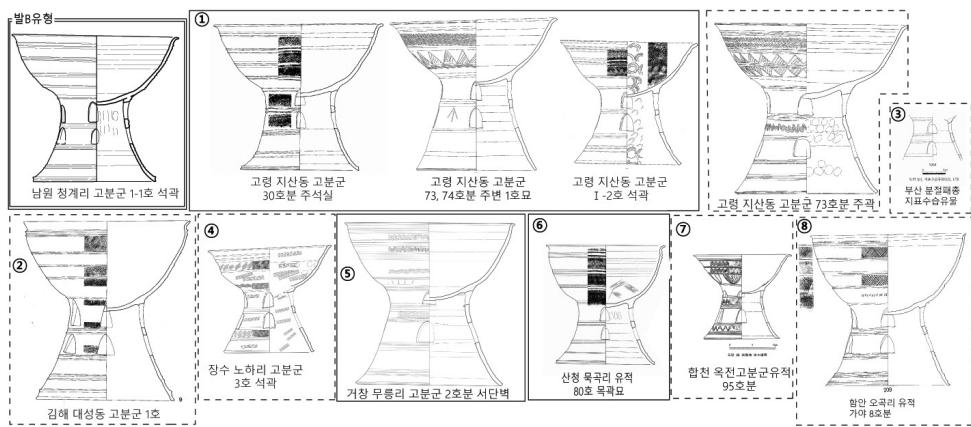
### III. 비교자료 검토

#### 1. 분포와 특징

##### 1) 발형기대

발A형 기대의 비교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발B형의 비교자료는 대각의 투창형태가 종형인 기대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도면 5). 가장 유사한 자료는 고령 지산동 30호분 주석실 출토품으로 크기, 수발부·대각 형태와 문양구성이 매우 흡사하다. 종형 투창의 기대는 거창, 경산, 고령, 김해, 남원, 대구, 마산, 산청, 장수, 함안, 합천 등지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종형 투창 기대가 가장 유행한 지역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일대로 확인되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발형기대 대각의 종형 투창 배치는 다양하며, 다른 지역의 발형기대 대각의 장식적 요소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심지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해 대성동 유적 1호, 함안 오곡리 유적 8호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발B형 기대의 수발부 형태는 고령지역과 다르다. 이들 기대는 수발부 내부가 넓고 깊으며, 구연부 꺾임이 심하여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유형과 구분된다. 아마 김



[도면 5] 별B·C형 비교자료

해, 함안 등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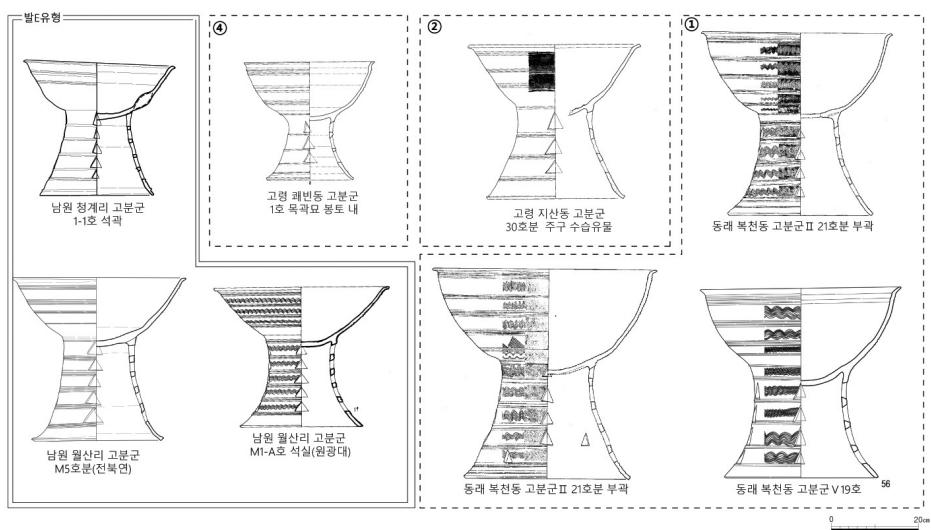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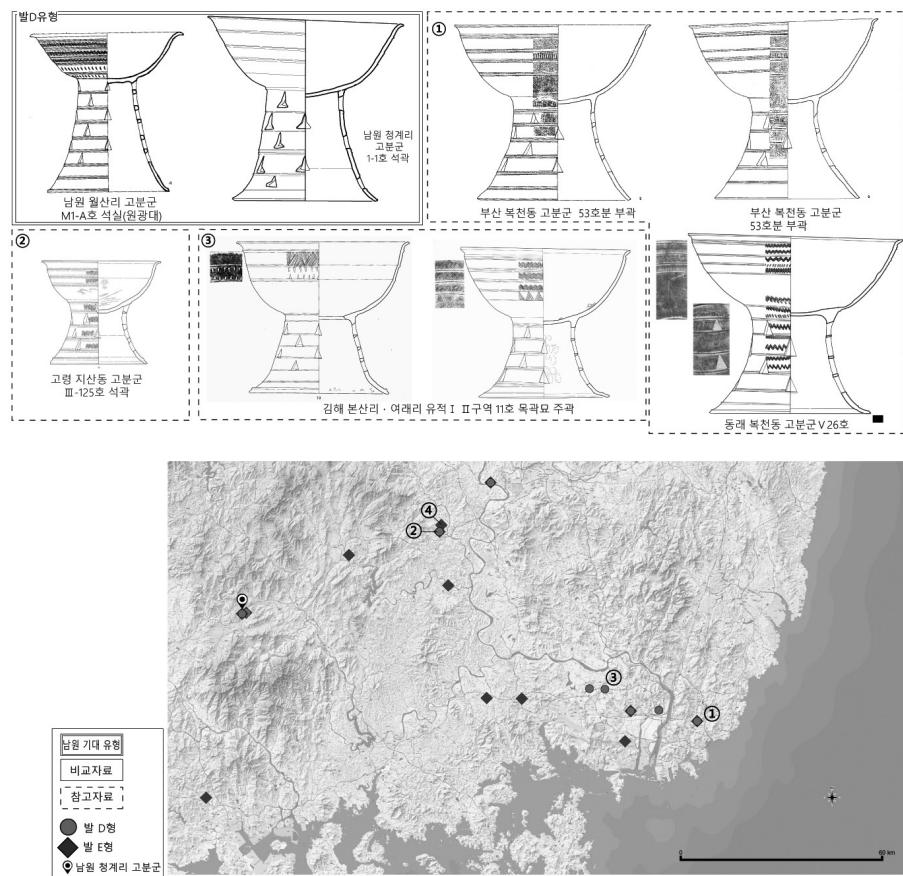
발C형 기대의 비교자료는 대각의 상하부 폭이 좁은 기형과 대각의 세장방형 투창이 교호로 배치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도면 5). 이 기대는 대각에 대개 3~4단의 구획 후, 상부에서부터 2~3단의 투창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대각에는 목제도구를 이용한 물레흔적이 남아 있다. 수발부는 밀집파상문을 2~3단 배치하고, 대각은 수발부와 달리 투창만 뚫고 문양을 시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수발부 구순부의 아래에 2개의 수평돌대(단면 삼각형)를 돌리는데, 대개 구순부에 밀착시켜 장식한다. 그러나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 석곽의 기대는 구순부와 그 아래 수평돌대 간의 공간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이 유형의 기대는 고성, 김해, 마산, 보성, 부산, 산청, 진주, 하동, 함안, 합천 등지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중심 분포지역은 진주일대이다. 진주 상촌리 유적 31호 · 54호 · 64호 토기가마에서 이 기대가 출토된 바 있어, 진주지역에서 직접 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조성원 2018: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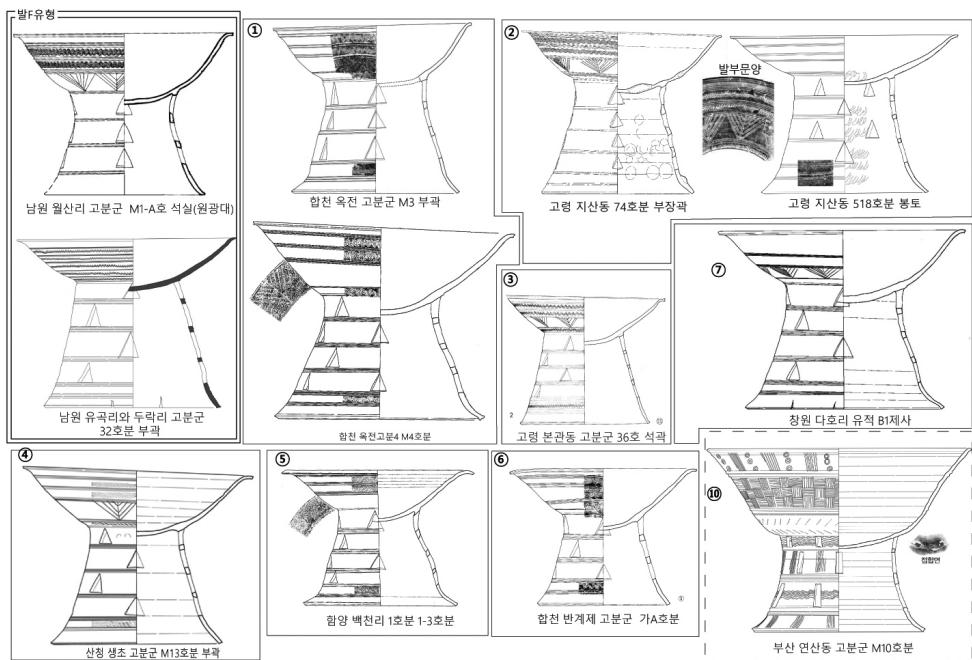
발D형 기대는 대각의 높이가 높고, 복수의 투창이 엇갈려 배치하고 있는 기대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도면 6). 가야와 신라지역 기대의 대각 투창은 3단 정도 뚫려 있는 것이 다수이고, 발F형을 제외한 기대 중에는 4단 이상의 투창을 뚫는 사례가 적었다. 이런 유형의 기대는 김해와 부산, 대구 일대의 몇몇 기대에서만 확인된다. 기대 제작에 있어 대각 투창의 단수가 많을수록 장식성이 높지만, 토기 건조 과정 중에 수발부의 무게로 인하여 대각이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대 제작기술의 숙련도가 높은 지역에서만 확인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D형 기대는 여러 장식이 복합되어 있는데, 참고한 부산 복천동 고분군 26호, 김해 본산리 · 여래리 유적 II-1호분 출토품에서도 2개 이상의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면 6).

발E형 기대는 발D형과 같이 높은 대각을 가지고 있되, 대각의 삼각형 투창이 일렬로 배치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도면 6). 발E형 기대는 발D형 기대의 투창과 같이 3단이 대부분이고, 4단 이상 뚫려 있는 경우가 드물다. 발E형의 기대 중 투창이 4단 이상인 기대도 부산지역에서 확인된다. 한편 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과 같이 발E형 기대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고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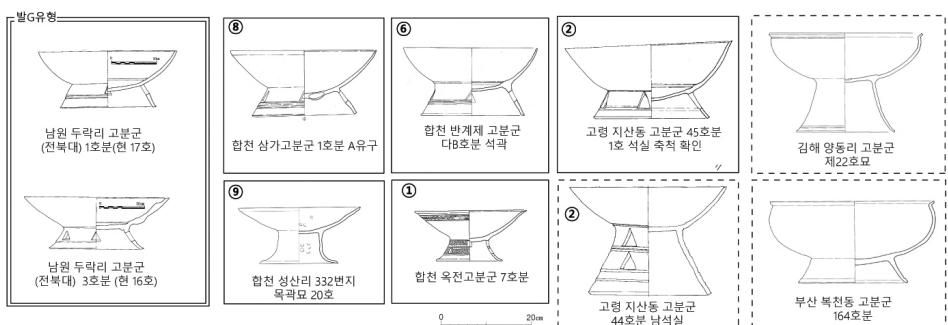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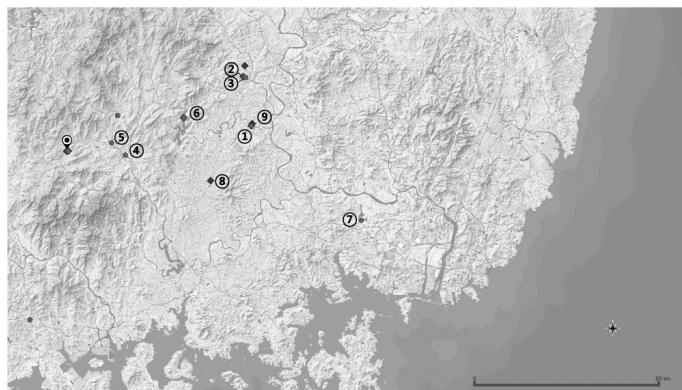
발F형 기대는 다른 유형의 기대보다 대각 상부와 대각 하부 폭이 넓다. 수발부도 넓은 구경에 높이가 낮아 심도가 낮은 편이다(도면 7). 이 유형은 고령, 산청, 순천, 창원, 함양, 합천 등지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이 유형의 중심지는 합천지역과 고령지



[도면 6] 발D · E형 비교자료



**남원 기대 유형**  
비교자료  
경고자료  
● 발 F형  
◆ 발 G형  
○ 남원지역 고분



[도면 7] 발F · G형 비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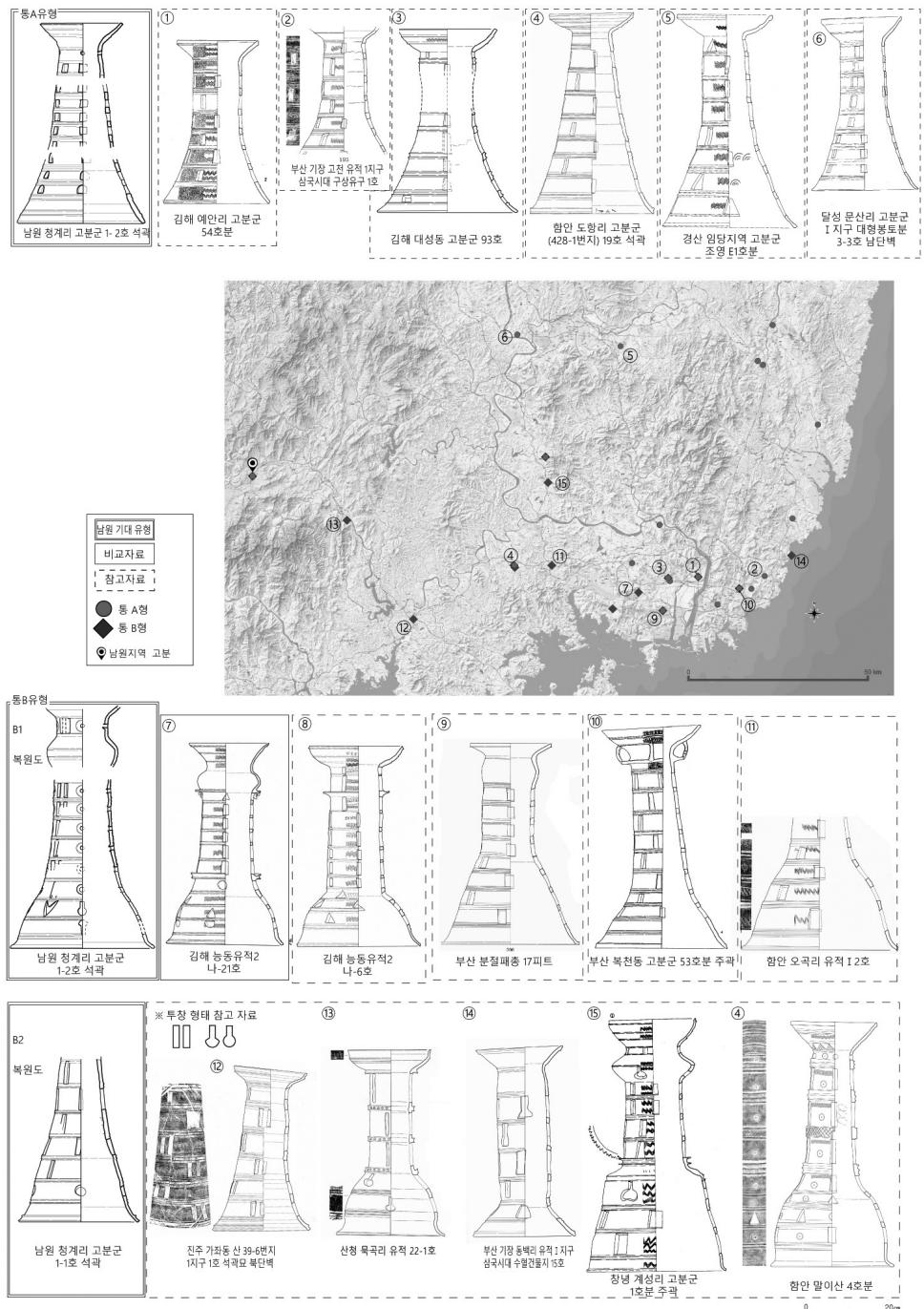
역으로 판단되고, 고령지역보다 합천지역의 많은 유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유형은 수발부에 밀집파상문, 그 아래 단에 잎맥 형태의 역삼각집선문을 많이 시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발F형 기대는 부곽에 동일한 형태의 기대를 대량 부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부곽에서 기대를 대량 부장하는 사례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 M4호 · M8호 · M10호에서도 확인되나, 수발부 형태와 장식에 있어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대형 기대인 점과 대각 상부, 대각 하부 폭이 넓다는 점에서는 비교할 수 있다.

발G형 기대는 대각이 낮으면서, 수발부 심도가 낮고, 구연은 꺾임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도면 7). 수발부에는 장식이 없고, 대각 문양 구획은 2단에 투창만 뚫는 경우가 많다. 고령 · 합천지역에서만 확인되고, 다른 발형기대에 비해 소수만 확인된다. 문양이 없는 발형기대는 김해와 부산 일대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지만 고령, 합천, 남원 등지에서 출토된 것과 그 형태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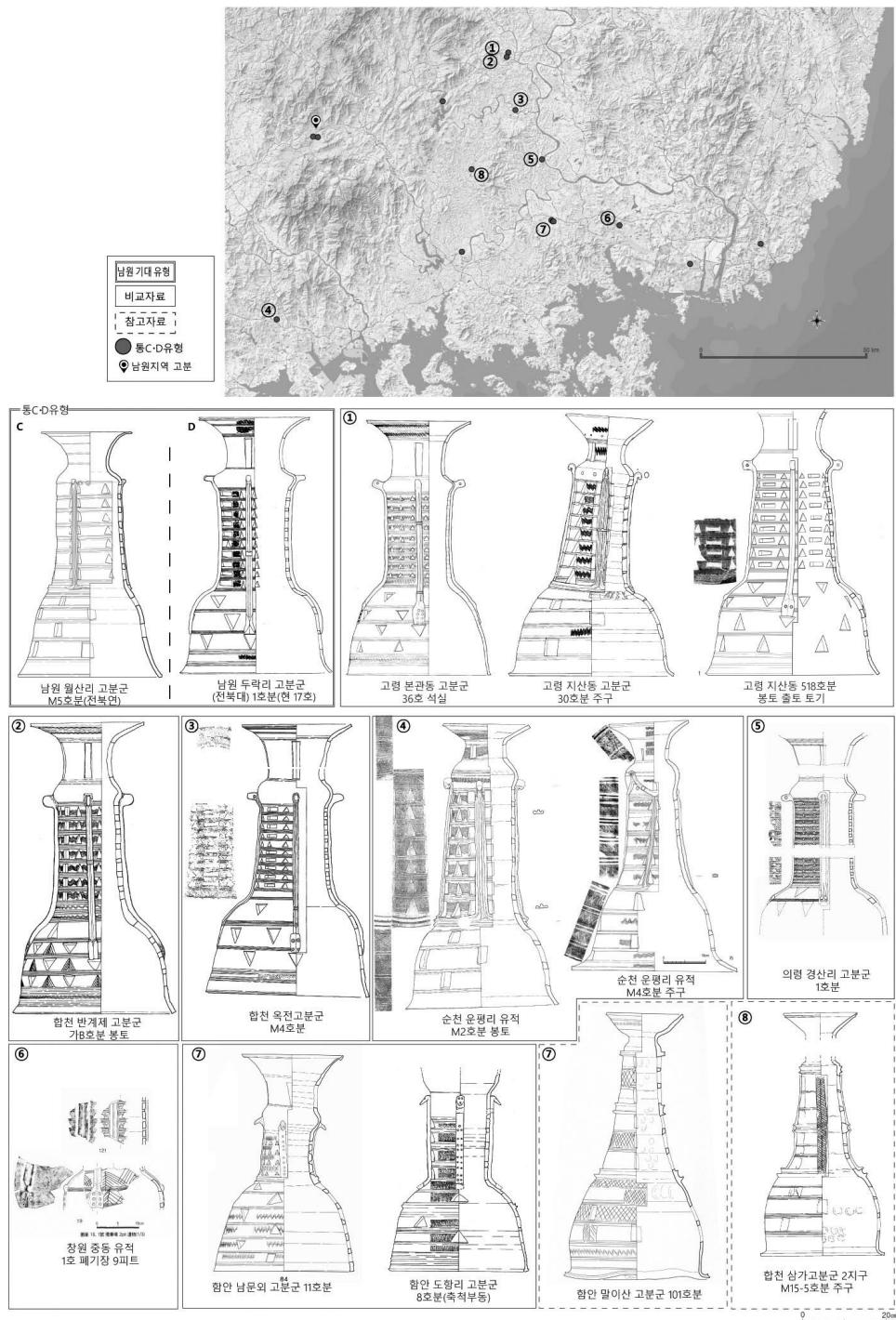
## 2) 통형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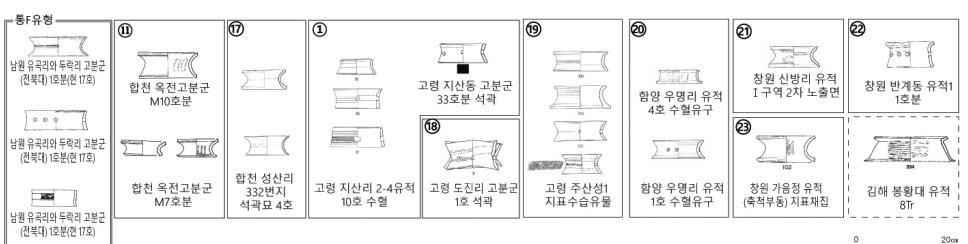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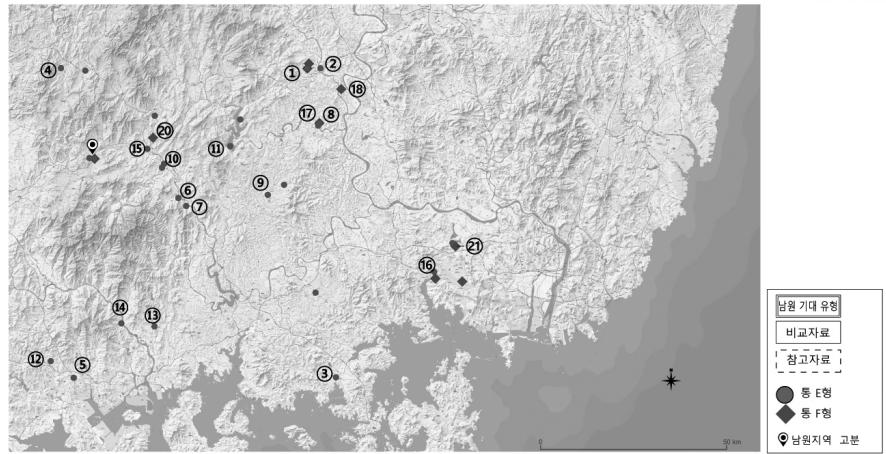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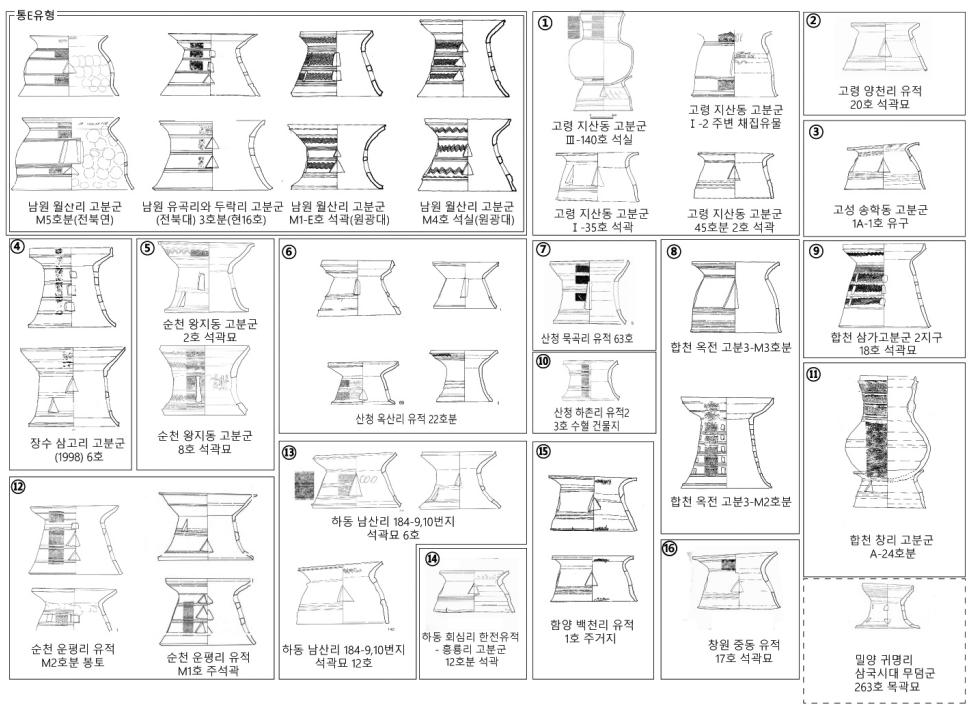
통A형 기대의 비교자료는 복원도를 바탕으로 대각이 나팔형이고 통부는 원통형인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도면 8). 비교한 기대 중, 통부는 원통형인 것도 있지만, 대각의 폭에 따라 하단이 벌어지는 것(나팔형)도 있다. 비교자료는 가야문화권에서는 김해, 부산, 창녕, 함안에서 출토된다. 고성 내산리 34호분에서도 출토되나 대각 하단에 비해 통부가 매우 좁아서 제외하였다. 대체로 신라문화권의 경산, 경주, 대구, 울산 등에서도 출토된다. 통A형에서 관찰되는 밀집파상문은 물레를 이용하여 한 번에 그려 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끊어서 그린 형태이다. 이런 종류의 문양은 김해 본산리 · 여래리 유적 II - 25호 목곽묘 발형기대 수발부 장식에서 확인된다. 이 유형의 주요 중심지역은 김해, 부산, 함안지역으로 판단되고, 김해, 부산지역의 영향을 받아 신라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B1형 기대의 대각은 통A형과 달리 외만하는 곡률을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도면 8). B2형도 비교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통B형과 비슷한 형태로 판단되나 대각의 시작이 높은 편이다. 통B형과 가장 비슷한 자료는 김해 능동 유적 II - 2호 석곽 출토품이 가장 유사하고, 참고자료 중 부산 분절폐총 17pit 기대의 호통부는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통B형의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2호 석곽 출토품은 투창 형태가 매우 특이한데, 통부는 1쌍의 세장방형 투창과 원문 · 원형 투창의 조합을 보이고 대각의 투창은 부채꼴형과 'V'자형도 관찰된다.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투창과 함



[도면 8] 통A · B형 비교자료





[도면 10] 통E · F형 비교자료

께 파상문이 관찰되지 않는다. 기형과 문양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김해, 부산, 산청, 창녕, 함안 등지에서 확인된다.

통C형은 자료를 검색한 결과, 통D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판단된다(도면 9). 통D형은 구연부 높이가 높고, 상부에 호통부를 만들어 놓은 원통형 통부, 반장고형 대각의 기대를 비교 대상으로 검토하였다(도면 9). 비교자료는 고령, 합천, 순천, 함안, 의령, 창원, 진주 등지에서 확인된다. 주요 중심지는 고령, 합천의 고분군으로 확인되고, 순천과 함안지역 출토품은 고령, 합천지역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라문화권의 의령 경산리 고분군 1호분에서도 통D형의 기대가 확인되었다. 순천 운평리 유적 M4호분 출토품은 다른 통D형과 함안지역에서 유행한 통형기대의 조형이 조합된 양상을 보인다.

통E형은 수부와 대각으로 구성된 기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도면 10). 이 유형은 소형기대와 유사하지만, 유개장경호, 단경호와 같은 중형토기들을 반치기에 알맞은 크기이다. 합천 창리 고분군 A-24호분에서는 유개장경호와 웅착 된 채 출토되기도 하였다. 분포지역은 고령, 고성, 산청, 순천, 장수, 진주, 창원, 하동, 함양, 합천지역에서 출토되고, 부산지역 출토품은 앞의 지역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정연성이 떨어진다. 중심 분포지역은 합천 지역으로 판단되고, 남원, 산청, 순천에서 다수 확인된다.

통F형은 일명 고리[環]형 기대로 불리는 것으로 높이가 매우 낮고, 단순 토기 적재용에 가깝다(조성원 2018: 66). 일부 통F형의 기형은 통E형 기대를 축소시켜 제작한 것과도 같다. 분포지역은 고령, 김해, 창원, 함양, 합천 등지에 출토되고 있고 제작이 간단한 것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 2. 연대 검토

이번 장에서는 기대의 각 유형별 분포와 사용기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각 유형별 기대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기대가 부장된 유구의 연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비교자료가 출토된 유구에 대한 기존의 편년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각 유형의 사용시점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참고한 편년 연구는 가야의 각 문화권에서 확인된 토기를 대상으로 교차편년을 실시한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박승규 2010; 박천수 2010; 홍보식 2014).

확인하고자 하는 기대의 사용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출토된 유구를 정

리하고, 기존 편년 연구에 반영된 유구를 검색하였다. 직접 반영 가능한 유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표 5, 6]과 같이 빠른 시기(상)의 유구, 늦은 시기(하)의 유구의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 상·하한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지만, 유형별 기대의 사용 기간을 정리할 수 있었다.

[표 5]를 보았을 때 남원지역의 발형기대 발B·D·E와 같은 유형은 6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발F형으로 교체되고, 그 시점에 발G형이 소수 제작되어 부상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발B형과 발F형 분포영역은 [도면 5, 7]과 같이 거의 일치하므로, 가야권 일대의 발B형에서 발F형로 기대 교체 양상에 대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박천수 1994a: 92~95; 박천수 2010: 78~79; 오동선 2020: 129).

통형기대 통A·B형은 대개 5세기 이후에 확인되고, 6세기 전후한 시점에 통E형으로 교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고령·합천 지역은 부산·김해 또는 다른 가야지역과 달리 통형기대 부상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고령지역의 통형기대는 통D형의 성립과 함께 주로 분묘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어, 부상이 아닌 분구제사에 사용되는 기물로 추정되고 있다(박천수 1994b: 46).

[표 5] 발형기대 유형 별 사용기간

	발B형	발C형	발D형	발E형	발F형	발G형
유구(상)	고령 지산동 30호	진주 우수리 18호	부산 복천동 53호분 부곽	부산 복천동 고분군 19호, 부산 복천동 21호 부곽	고령 지산동 44호분	고령 지산동 45호 석실
	고령 지산동 44호분	고성 연당리 18호분			합천 옥전 M4호	합천 삼가 1-A호 석곽
박승규 안 (2010: 29~77)	5C 2/4	5C 2/4	–	–	5C4/4	6C 1/4
	5C4/4	6C 2/4	–	–	5C4/4	6C 2/4
박천수 안 (2010: 134)	5C 2/5	5C 1/5	–	–, 4C 5/5	5C 5/5C	6C 1/5
	5C 5/5C	6C 1~2/5			6C 1/5	6C 2/5
홍보식 안 (2014: 219)	5C 3/4	5C 3/4	5C 2/4	5C 2/4, –	6C 1/4	6C 2/4
	6C 1/4	6C 3/4			6C 2/4	–
종합	5C 2/4 ~ 6C 1/4	5C 1/4 ~6C 3/4	5C 2/4 0이후	4C 4/4 또는 5C 2/4 이후	5C 4/4 ~ 6C 2/4	6C 1/4 ~ 6C 2/4
비고					부산 연산동 M3(5C 3/4, 홍보식 2014)	

[표 6] 통형기대 유형 별 사용기간

	통A형	통B형	통C · D형	통E형	통F형
유구(상)	김해 예안리 138호분	부산 복천동 31호 부곽, 21호 부곽	고령 본관동 36호, 합천 옥전 M4	합천 옥전 M3 고령 지산동 45호분	고령 지산동 33호분
유구(하)	부산 복천동 4호분				합천 옥전 M10
박승규 안 (2010: 29~77)	4C 3/4	5C 1/4 ~	5C 4/4 (옥전M4)	5C 4/4, 6C 1/4	-
	-		6C 1/4 (본관동36호)		6C 2/4
박천수 안 (2010: 134)	-	4C 4/5, 4C 5/5	-	5C 5/5, 6C 1/5	-
	5C 3/5		6C 1/5	6C 1/5	-
홍보식 안 (2014: 219)		5C 1/4, 5C 2/4	6C 1/4, 6C 2/4	6C 1/4 6C 2/4	5C 4/4
	5C 4/4				6C 3/4
종합	4C 3/4 ~ 5C 4/4	4C 4/4 ~	5C 4/4 ~ 6C 2/4	5C 4/4 ~ 6C 2/4	5C 4/4 ~ 6C 3/4
비고					

합천 지역에서는 고령과 같이 호통부를 갖춘 통형기대가 확인되나, 대개 합천 삼가고분군 II-M15-5호분 주구 출토품(도면 9)과 같이 다른 문화권의 기대들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 비교적 많다. 통E형은 통C · D형의 성립과 함께 등장하였고, 통C · D형과 달리 중소형의 많은 고분에서도부장되는 양상을 띤다. 통F형도 통C · D · E형과 비슷한 시점부터 부장되기 시작한다.

## IV. 기대의 계통과 가치

### 1.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

이전 장의 논의를 토대로 남원지역 출토 기대의 계통과 사용시기, 분포에 대한 정리는 [표 7]과 같다. 남원 지역에서는 대가야(발B · F · G형/통C · D · E · F), 소가야(발C형) 계통의 기대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발D · E/통A · B형의 계통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남원과 인접한 지역인 아닌 김해 · 부산에서 확인되므로, 금관가야 계통의 기대라 추정된다.

[표 7]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과 분포지역

기대 종류	계통 · 시기 · 분포	출토 유구	주요 계통	사용시기	분포(유행지역)		비고
					중심권	영향권	
발형기대	발A형	-청계리 청계고분군 1-2호	현지제작 (금관가야 추정)		-	-	
	발B형	-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	대가야	5C 1/4 ~ 6C 1/4	고령	거창 경산, 남원, 대구, 마산, 산청, 장수, 함안, 합천, 남원	
	발C형	-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 -월산리 M3, M5	소가야	5C 1/4 ~ 6C 3/4	진주, 고성	마산, 보성, 산청, 진주, 하동, 함안, 합천, 남원	
	발D형	-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 -월산리 고분군 M1-A	현지화 (금관가야 추정)	5C 2/4 이후	-	김해, 부산, 남원	
	발E형	-청계리 청계고분 1-1호 -월산리 고분군 M1-A, M5	현지화 (금관가야 추정)	4C 4/4 또는 5C 4/4 이후	-	김해, 부산, 남원	
	발F형	-월산리 고분군 M1-A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 부곽	대가야	5C 4/4 ~ 6C 2/4	고령, 합천	산청, 순천, 함양, 남원, 창원	
	발G형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호 · 3호분 (현 17호 · 16호)	대가야	6C 1/4 ~ 6C 2/4	고령, 합천	남원	
통형기대	통A형	-청계리 청계고분군 1-2호	금관가야 추정	4C 3/4 ~ 5C 4/4	부산, 김해?	창녕 함안, 남원 등	
	통B형	-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 · 2호	금관가야, 아라가야 추정	4C 4/4 ~	김해, 부산, 함안	남원	
	통C · D형	-월산리 고분군 M5 호분 -월산리 고분군 M1-E, M5호 · 3호 · 4호 · 5호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호분 (현 17호) -대곡리 유적 나-1호 주거지	대가야	5C 4/4 ~ 6C 2/4	고령, 합천	순천, 함안, 의령, 창원	
	통E형	-월산리 고분군 M1-A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32호 부곽	대가야	5C 4/4 ~ 6C 2/4	고령, 합천	창원, 함양	
	통F형	-두락리 고분군 1호 · 3호분 (현 17호 · 16호)	대가야	5C 4/4 ~ 6C 3/4	고령, 합천	창원, 함양	

지금까지 조사된 각 고분군에서 확인된 기대의 계통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각 고분군의 조영 순서는 청계리 청계고분군 → 월산리 고분군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으로 판단되는데, 조영순서를 참고하면 부장된 기대의 계통이 점차 대가야 계통으로 대체되어 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표 8]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남원 월산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기대 계통과 특징 비교

기대종류, 특징	출토유구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1호분 1호, 2호	M3, M4, M5, M6, M1-A	32호, 1호(현17호), 3호분(현16호)	
발형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금관가야(현지화), 소가야(현지화), 대가야	대가야	
통형	금관가야, 아라가야 추정	대가야	대가야	
특징	다양한 형태의 기대를 부장	현지 제작된 기대부장, 대가야의 비중이 높아짐, 동일한 형태의 기대를 복수 부장하는 양상 확인(M5)	대가야 기대 부장 32호 부곽에 발F형 기대를 대량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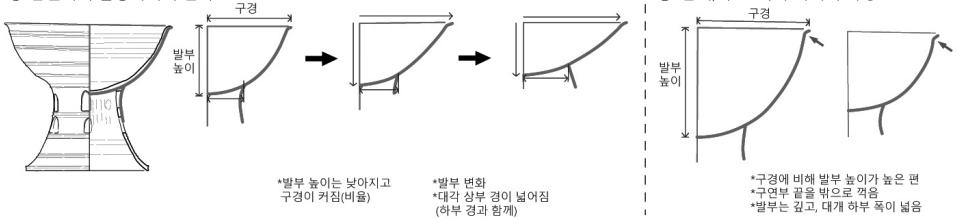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1, 2호 석곽은 다른 고분군에 비해 기대의 계통이 복합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2호 석곽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금관가야 기대의 기형과 아라가야의 원문·원형투창[동심원문]과 같은 요소도 관찰된다. 이러한 요소는 인접한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지 않았으므로, 금관가야나 아라가야 지역으로부터의 제품 또는 공인의 이동과 같은 직접적인 연관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2호 석곽에는 [도면 11-①]과 같은 발형기대의 수발부도 확인되었는데, 기형과 문양 구성에 있어 합천 삼가 2지구 지표수습품과 동일하다. 물론 각각의 기대는 각기 다른 계기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합천과 연관된 발형기대가 출토된다. 금관·아라가야 계통의 기대는 합천지역에 영향을 주었고, 합천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금관·아라가야 계통의 기대가 청계리 청계고분 1-2호 석곽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1호 석곽 출토 기대는 2호 석곽 출토품과 그 형태가 전혀 다르다. 발형기대에서는 고령과 진주지역 출토품과 직접 비교 가능한 기대가 확인되었다. 1호 석곽의 발B형 기대는 대가야계 고령 지산동 30호분, 발C형은 남해안의 가야권 일대에 분포하는 소가야계의 발형기대와 비교 가능하다. 참고로 소가야계 발형기대들은 수발부와 대각이 거의 흡사한 조형을 갖추고 있는데, 기형은 물론이고 문양배치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수발부의 구순부 바로 아래 2줄의 돌선을 배치하는 것마저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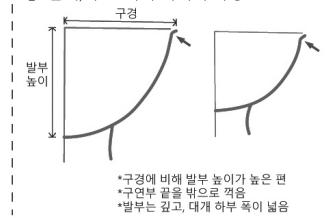
①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2호 석곽 발형기대 비교자료



② 남원지역 발형기대의 변화



③ 김해, 부산 지역 기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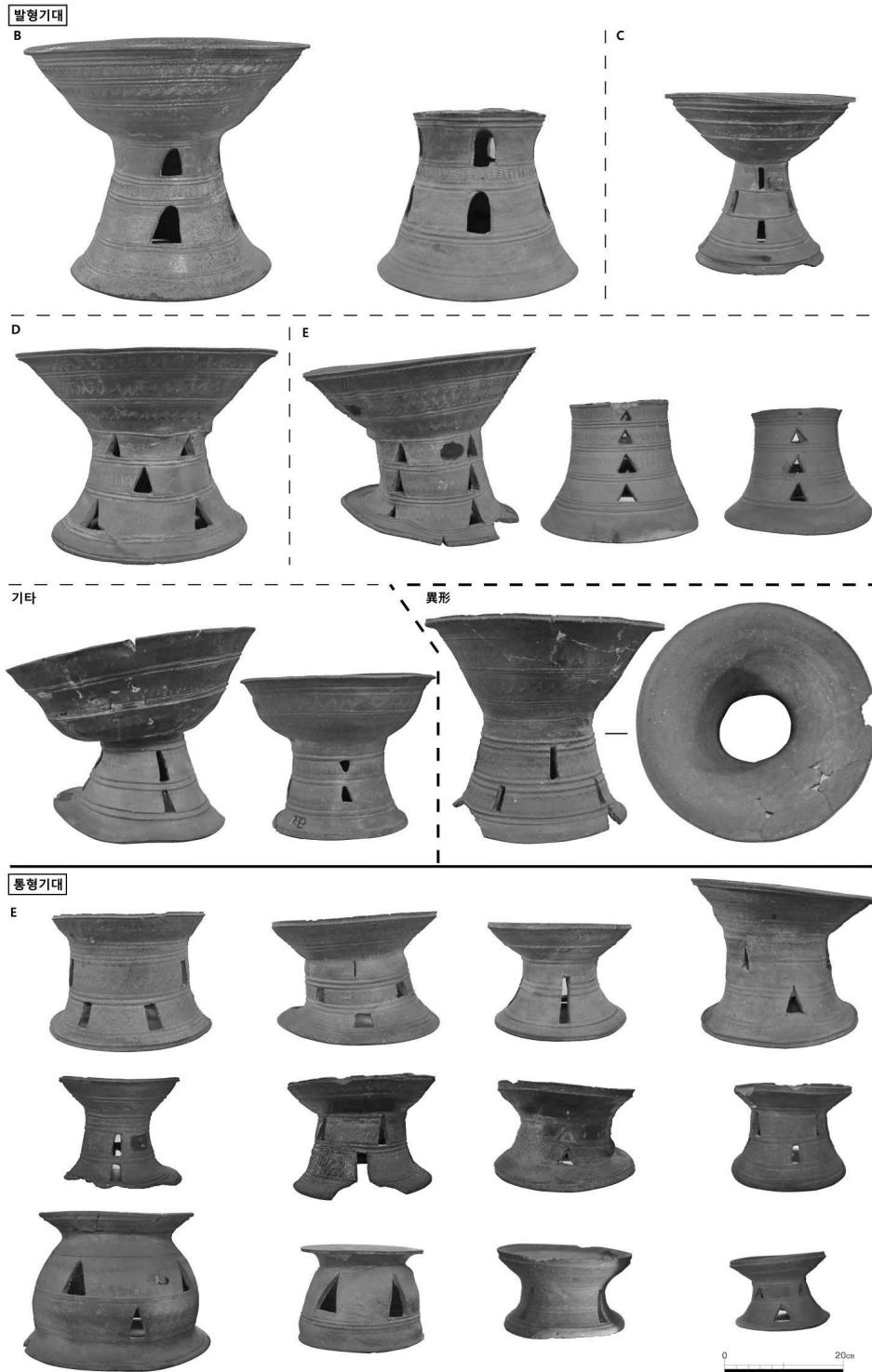
[도면 11] ①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2호 석곽 발형기대 비교자료, ②남원지역 발형기대의 변화, ③ 김해, 부산지역 기대의 특징

하고 있다. 1호 석곽의 이 두 기대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유통으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영향권 지역에서도 발B·C형의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

남원 월산리 고분군 기대는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1-1호 석곽 발D·E형의 기대 제작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고,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 1호 석곽의 기대와 1-2호 석곽의 발A형 기대도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원 월산리 고분군의 M3, M5호분에서 소가야계 기대가 확인되기도 하는데. 남원 월산리 M3호분 출토품은 다른 소가아계 발C형에 비해 대각 상부 폭과 하부 폭보다 넓은 편이므로,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부장된 기대는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도면 12]의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중인 남원 아영면에서 수습된 기대<sup>3)</sup> 중 일부 기대들은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면 12]의 발 D, E형과 통E형은 남원 월산리 고분군 기대와 비교 가능하고, 그중 이형의 기대는 발형기대와 형태와 크기가 유사하지만 통형기대의 형태를 보이는 비전형적인 기대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 보이는 현지 기대의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 [도면 12]의 발 B형은 월산리 고분군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그 기형과 문양 구성에 있어 고령 지산동 30호·33호분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다.

3)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된 [도면 12]의 기대들은 개인에게 기증 받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원 아영면 일대의 여러 고분군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기대가 수습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도면 12] 남원 아영면 일대에서 수습된 기대(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기증품)

그리고 남원 월산리 고분군의 발형기대는 대가야 발형기대처럼 점차 수발부 높이가 낮아지고 구경이 커지고, 대각 상·하부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확인(도 11-②)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대가야계 발형기대의 변화와 관련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 묘지를 조영한 세력에 의해 점차 발F형, 통C·E형과 같은 대가야계 기대가 부장되는 양상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남원 월산리 M5호분의 대가야계 통C형은 고령이나 합천 등지에서 확인되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1호분(현 17호분) 통D형과 형태와 문양이 다르다. 통C형은 통D형의 전형을 따라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례는 순천 운평리 유적 M2, M4호에서도 확인된다. 통D형은 대개 수부에 투창을 뚫지만 남원 통C형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통부와 대각의 연결부와 통부의 투창 형태도 특이한 편이다. 지금까지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모방제품으로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문양과 투창 등은 전혀 다르지만, 호통부와 대각 형태 측면에서는 통B1형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서도 발F형·통E형과 같은 대가야계 기대가 함께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는 발D·E형의 기대를 확인되지 않고, 발G형, 통D·E형과 같은 전형적인 대가야계 기대가 확인된다. 발D·E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기대에서는 인근의 남원 월산리 고분군과 달리 현지제작과 관련지을 수 있는 기대 요소가 뚜렷하지 않다.

## 2. 가야 기대의 유통 가능성과 부장의미

본 논고의 마지막으로 남원지역 기대를 검토하면서 생긴 2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매장시설에 부장된 다른 집단의 기대에 대한 문제로, 어떠한 배경으로 입수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주요 생산지의 토기 유통에 대한 논의와 연관이 있다. 토기제작 공인의 이동과 정착뿐만 아니라 토기 유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유통 체계의 배후에는 사고파는 행위가 아닌 중여 또는 교환을 상정 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기대의 부장과 그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가야권과 신라권에서는 다수의 고분에서 기대를 부장하는 습속이 관찰된다. 이 습속은 마한·백제권과 다른 양상을 보

여준다. 본 논고에서는 남원지역 기대 부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 1) 기대의 유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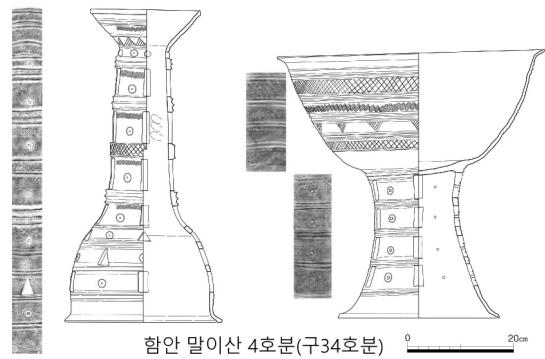
발B·C·F, 통D형은 중심권 기대의 특징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남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이 유형의 기대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통되었거나, 현지세력의 노력에 의해 입수했을 수도 있다. 그중 발B·C양식은 분포 범위(도면 5)에 있어 서로 구분되는 양상을 띠고, Ⅲ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중심권에서 영향권으로의 유통을 상정할 수 있다.<sup>4)</sup> 만약 기대의 유통이 교환 또는 증여로부터 성사되었다면, 증여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답례를 통한 양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양 지역 간의 상호교류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의 한 계층에 있어서 기대를 부장해야 한다는 습속이 있고, 타 집단을 대표하는 기대를 부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타 집단에 대한 존중, 우호, 종속 등과 같은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고유의 기대를 제작하고 의도적으로 유통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기종은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발B·C·F형, 통D형 중에서도 유통의 결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한다. B형에서는 장수 노하리 고분군 3호 석곽, 마산 합성동 유적 100호 등, C형에서는 하동 남산리 184번지 석곽묘 15호, 합천 삼가고분군 Ⅱ - I -6호 목곽묘, 남원 월산리 M5호 등이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현지에서 특정 지역의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도 가야권 기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야지역에서는 특정시기 동안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제작된 기대를 부장하는 유행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기대의 유통과 모방제작이 실시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 고령·합천을 위시한 대가야, 진주 일대의 소가야 기대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물품이며, 이에 대한 가치에 따라 다른 집단 간에 증여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타 집단에서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은 기대가 일종의 가치물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함안 일대의 아라가야는 다른 가야권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발형·통형기대

4) 한편 소가야권에서 발B양식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았을 때, 집단 간의 기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환하는 행위는 흔하게 있었던 일로 보기 어렵다.

(도면 13)를부장하는양상을보이는데, 이러한기대는 다른지역에서확인되지않고, 함안지역에서만확인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사례는가야권에서는특정기대를생산하는집단과다른집단간의유통이가야권에서반드시일반적인것은아님을보여준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서로다른집단사이의기대유통에대해서는주체집단의특별한정치적의도에대해서도염두할수있을것이다.



[도면 13] 함안지역 통형기대와 발형기대

## 2) 남원지역의 기대 부장 의미와 가치

남원 아영면 일대의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서는 발형·통형기대 부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지역의 일부 기대는 다른 집단으로 증여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상정해볼 수 있다. 가야권에서는 기대는 부장품목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가치물로서 증여관계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특정 집단 간의 문화·사회적 교류도 염두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조영세력이 다른 고분군들 사이에서는 외부 집단에 의한 영향력과 각 집단 간의 다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어, 기대의 구성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각 연구대상인 남원지역 세 고분군은 조영시점이 다르고, 일부 분묘에서 조영시점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고분군은 서로 다른 집단 또는 동일 집단에서 분화된 다른 집단에 의해 축조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고분군의 기대를 부장하는 양상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세 고분군의 기대 부장과 그에 따른 의미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은 6기의 고분 중, 2기만 조사되었고 대부분 도굴로 인해 교란되었다(남원시청·혜원문화재연구원, 2015: 83~87). 그러나 1-1, 2호 석곽에서 부장되는 기대의 형태는 모두 다르고, 계통도 다르다. 따라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발형·통형기대를 부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1호 석곽의 발형기대 구성에서 두드러지는데, 다른 남원지역 고분들과 다르다. 그뿐만이 아니라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같이 발B·C형 발형기대가 동반하는 사례는 가야권에서도 거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하는 1-2호 석곽의 통B1형 기대의 장식은 여러 가야권의 장식이 복합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청계리 청계고분군의 부장된 기대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특징적인 기대와 장식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에서 출토되는 1호 석곽의 발D·E형은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발A형을 비롯한 2호 석곽의 통형기대들도 현지 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호통부가 확인된 통형기대는 다른 가야문화권의 기대의 장식과 복합적인 양식을 보이고, 인접한 집단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는다. 독특한 형태와 장식은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기대를 제작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의 발D·E형, 특히 발E형은 남원 월산리 고분군 부장된 기대와 서로 유사성으로 보았을 때, 남원 월산리 고분군으로의 제작기술의 이전 또는 계승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남원 월산리 고분군은 현지 제작으로 추정되는 기대를 부장하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계통은 발C·F형, 통C·E형 기대뿐이다. 그중 M5호분에서 출토된 통C·E형도 고령·합천지역의 것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월산리 고분군에서는 현지세력의 주도하에 발형·통형기대를 제작하여 부장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일부 대가야권에서 유행하는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후, 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5호분에서는 동일한 발형기대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부장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대량의 기대를 부장하는 행위는 발F형 사례를 제외하면 고령 지산동 73·75호 부곽, 합천 옥전 M23, 동래 복천동 고분군 10·21·53호분 부곽에서 확인된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발F형과 통D형을 비롯한 다른 기대들은 대가야 기대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고분은 도굴되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기대에서는 앞의 두 고분군과 달리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요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기대도 통E형은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가야 양식의 강한 영향력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

대를부장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대체로 대가야 집단과 동일한 양상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32호분 부곽에서 발F형의 기대를 부장하는 것도 대가야 집단에서 확인되는 부장 양상과 동일하다. 그러나 발F형 기대의 부장은 중심권인 고령과 합천지역보다 주변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의 기대를 부장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발F형의 영향권 내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고분으로는 함양 백천리 고분군 1-3호분, 산청 생초 M13호 사례를 들 수 있고, 모두 부곽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영향권지역에서 발F형을 부곽에 대량 부장하는 사례는 동일 고분군 안에서는 한 곳의 고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중심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대량의 기대 부장은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부산 연산동 고분군에서도 발F형과 같은 대형 발형기대를 대량 부장하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일회적인 부장인 아닌 M3 · M10에서 M8호로 연이어 부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대의 대량 부장은 부산과 고령 · 합천지역과 같은 전문화된 작업공방과 함께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는 가마를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에서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 기대를 부장하는 고분이 많다는 점은 가마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준다. 토기의 대량제작은 가야권 내에서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형 기대의 대량 부장은 영향권 내의 집단에서는 과도하게 부를 과시하는 양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남원과 함께 인접한 함양, 산청의 일대의 고분군에서 보이는 대형 기대의 부장은 조영세력들 사이에 있었던 경쟁적인 부의 과시 행위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의 피장자 또는 장례주관자는 당시 남원-함양-산청 일대에 있었던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발F형 기대의 유통은, 대량의 기물로 미루어 봤을 때, 집단 간의 교류가 큰 규모로 성사되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 V . 맷음말

본고에서는 남원지역 기대의 계통과 구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여 접근하였다. 검토한 결과, 3개의 고분군은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의 계통과 몇몇 고분에서 보이는 구성이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대가야 토기 양식의 영향력

이 점차 커지면서 생기는 차이로 인식되는데, 각 3개 고분군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정도가 달랐다. 따라서 3개의 고분군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조영세력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집단들 간의 기대 부장 패턴의 몇 가지 차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는 현지에서 기대를 제작하고 일부 대가야 기대를 모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남원지역 세력의 주도하에 있었던 기대 제작과 부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경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원지역에서 확인되는 대가야권의 발B·F형과 통D형, 소가야권 발C형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특정기대가 중심권지역에서 다른 주변지역으로 유통하는 상황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었다. 일부 지역의 특정 기대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은 유통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기대의 유통과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가야사회의 기대에 대한 비중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대는 가야 집단들 간의 중여의 대상이 되는 가치물로 볼 수 있고, 대형 기대인 발F형을 통하여 기대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교류가 있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대 가야 사회의 기대가 갖는 가치와 그 의미에 접근하고자 남원 지역 기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가야 지역 내의 모든 기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기대의 유통 가능성과 동일 지역 내에서 기대와 관련된 부장습속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대를 둘러싼 고대 가야사회의 각 집단 간 교류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행위, 즉 중여와 같은 집단 간의 호혜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가야 사회에서 기대가 갖는 의미와 각 집단의 기대에서 관찰되는 유통 또는 중여 관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20년 10월 29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남원시가 공동 주최한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조사성과와 의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 참고문헌

- 姜允錫, 1999, 「新羅·가야古墳에 나타난 祭祀儀式에 關한 研究」 한양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20,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0,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와 백제』 제1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남원시청·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 남원시청·해원문화재연구원, 2015,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주변 문화재-고분 분포 조사 보고서」.
- 박승규, 2010, 『加耶土器 様式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천수, 1994a, 「대가야권 기대의 편년」, 『한국고고학보』39,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4b, 「伽倻·新羅地域の首長墓における筒形器台」, 『考古學研究』第40卷 第4号, 考古学研究会編集委員会.
- \_\_\_\_\_, 1999, 「기대를 통하여 본 가야세력의 동향」,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 \_\_\_\_\_, 2009, 「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그 역사적 의미」, 『고령 지산동 44호분』, 경북대학교 박물관.
- \_\_\_\_\_, 2010, 『가야토기』, 진인진.
- 오동선, 2020,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韓國考古學報』117, 韓國考古學會.
- 이건용, 2020, 「남원 청계리 고분군 출토유물 연구」, 「남원 월산리 청계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 이성주, 2004, 「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 『韓國考古學報』52,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9, 「新羅·加耶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72, 韩國考古學會.
- 이희준,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13, 영남문화연구원.
- 조성원, 2014, 「삼국시대 영남지역 도질토기 생산체계와 유통」, 『영남고고학』89, 영남고고학회.
- \_\_\_\_\_, 2018, 「소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19, 「토기생산으로 본 가야와 왜의 토기 문화」, 『가야와 왜의 토기 생산과 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야문화연구원.
- 최완규, 2018,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59, 호남고고학회.
-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 A Review on the Pottery Stands excavated in Namwon Area

Yi, Gun-Ryoung (Researcher,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is a review of pottery-stands excavated from the Namwon area. The purpose of the discussion was to discuss the background of the pottery-stands and burial found in ancient tombs in Namwon. Pottery-stands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in Namwon area and pottery-stands excavated from historical sit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were compared. The review was focused on pottery-stands excavated from the Wolsan-ri, Yugok-ri and Durak-ri Tombs, and Cheonggye-ri Cheonggye Tombs.

According to the shape and decoration of the research data, there are 7 bowl-shaped pottery stands(TONG A · B · C · D · E · F · G) and 6 cylinder-shaped pottery-stands (BAL A · B · C · D · E · F). The distribution of comparative data for each type could be confirmed in Gaya and Silla. It was judged that some types were produced locally.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the system and composition of the pottery-stands of the three tomb groups were different. The tombs were constructed in the order of Tombs in Cheonggye-ri Cheonggye, Wolsan-ri Tombs, Yugok-ri and Durak-ri Tombs. The buried pottery-stands were gradually replaced by the Daegaya style. Accordingly, the production of pottery-stands led by the local forces is also gradually decreasing.

In addition, for the BAL B · Ftype and TONG Dtype of the Daegaya area, and

the Ctype of Sogaya area pottery-stand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distribution of specific pottery-stands from the central area to other surrounding areas. And the distribution of pottery stands was assumed as a result of the donation led by the Daegaya and Sogaya groups.

Key words : Namwon Area, Three kingdom period, Bowl-shaped pottery, Cylinder-shared potter stand, filiation